동고당 문성 대종사 독립유공자 추서

국가보훈처 8월 9일 공문 통해 대통령 표창상 포상키로

친일승 강대련 '명고축출'이 계기
조선불교유신회 결성 등 독립운동
전시관 · 음악회 등 추모 사업 기획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지키고 항일운동에 앞장선 동고당 문성 대종사(東皐堂 汶星大宗師, 1897~1997)<사진>가 독립유공자로 추서됐다.

국가보훈처는 8월 9일 공문을 통해 "정부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여 민족자존의 기치를 높이 세우신 박문성 선생의 독립운동 위업을 기리어 대통령 표창에 포상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렸다.

문성 대종사의 상좌인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은 8월 24일 해인정사 문화회관에서 '동고당 문성대종사 독립유공자 추서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문성 대종사의 일대기와 활동을 알렸다.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의 독립유공자 추서는 친일 승려였던 강대련을 명고축출(鳴鼓逐出)한 사건을 계기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명고축출 외에도 일생을 통해 불교정화와 독립운동을 펼친 숭고한 삶을 전국 곳곳 주요사찰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해인사에서 만세운동을 하고 일본경찰 두 명을 격퇴한 후 수도암으로 피신한 것은 스님이 저에게 직접 들려준 일화이다"고 말했다.

명고축출(鳴鼓逐出)은 스님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승권을 뺏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인 산문출송(山門黜送)을 의미한다. 명고축출은 1922년 3월 26일 33본산 주지 연합의 대표였던 친일 승려 강대련의 등에 북을 달고 종로 거리를 행진한 사건이다. 강대련은 조선총독 사이또에게 '조선불교기관확장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의 스님들과 일본의 스님 혹은 일본 여자와 결혼시켜 교화를 이루자"는 내용을 담았다.

문성 스님은 강대련에게 "조선불교를 망치려는 불교의 악마"라며 지탄했고, 명고축출 사건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언도 받았다. 이후 문성 스님은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와세다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게 된다.

문성 스님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시 통도사 조실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육혈포삼발승어독서천권(六穴包三發 勝於讀書千卷)'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은 후라고 알려져 있다.



문성 스님은 한용운 스님의 강연 이후 '조선불교유신회'를 창립하며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조선불교유신회는 젊은 스님들이 국권을 회복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문성 스님과 한용운, 김법광, 김상호 4명의 스님이 주축이 되어 창립됐다. 문성 스님은 조선불교유신회의 발기인으로 독립운동과 조선불교의 정통성 및 청정승가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해방 이후에도 청정한 한국불교의 전통성 회복을 위해 동산 스님, 청담 스님과 함께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섰으며, 1962년 조계종이 성립될 당시 초대감찰 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3번에 걸쳐 감찰원장을 지냈다.

수진 스님은 "문성 노사의 애국, 애종심은 청빈한 삶과 곡직한 원칙주의 그리고 돈과 권력에 걸림이 없었던 삶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스님의 삶과 사상을 알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장기적으로는 추모탑과 전시관을 세우고 가을에는 추모음악회를 여는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고당 문성 대종사는 1897년 2월 6일 경북 영천군 북안면에서 출생했다. 1907년 10세가 되던 해 부친과 통도사를 참배하던 중 저녁 예불 소리를 듣고 무상함을 느껴 다음 해 출가했다. 1911년 4월 15일 경남 고성군 옥천사 서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20년 조선불교청년회에 가입했고 다음해 해인사에서 3.1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을 격퇴하고 김천 수도암으로 피신했다. 이후 교원 및 강사로 활동하며 인재양성에 앞장섰고 금강산 마하연, 함경도 보현사, 통도사, 해인사, 옥천사 등에서 안거정진했다. 옥천사에서 안거정진 하던 중 1935년 4월 29일 깨달음을 얻고 '임발청산장향기(臨發靑山藏香氣) 해저노룡함진주(海底老龍含眞珠) 향기진주수미로(香氣眞珠雖未露) 변복삼천상방광(邊覆三千常放光)'이라는 오도송을 읊었다. 1947년 고성 옥천사 백련암에서 6년 결사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1951년 옥천사 주지였을 당시 국내 최초 종군 포교사로 철원의 전쟁터에서 활약했다. 불교정화 활동 이후 옥천사 초대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장, 마하사 주지, 통합종단 초대 감찰원장에 취임했으며 이후 감찰원장을 세 번 더 역임했다. 1974년 감찰원장 사임 후 1978년 대한불교조계종 초대원로위원으로 추대, 1994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명예원로위원으로 추대됐다. 1997년 7월 10일 세수 100세 법납 86세로 '석가강생작야몽(釋迦降生昨夜夢) 달마도강몽견공(達磨渡江夢見空)약인문아진소식(若人問我眞消息)금용은사살인중(金龍銀蛇殺人中)'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화엄종주 무비 대종사, 전강전등 건당식

정행 등 9명 제자에게 강맥 전해
성불 당부 법문에 포교 원력 다짐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8월 20일 대적광전 법계탑 마당 특설법단에서 화엄종주 무비 대종사의 전강전등 건당식을 봉행했다.<사진>

건당식은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보일 스님의 고불문 낭독으로 시작해 전등법사 무비 대종사의 등단, 헌다, 헌화, 청법가, 법어 전등법계 전수 및 교시, 죽비 경책 순으로 진행됐다.

건당법사 무비 대종사가 등단하자 제자들은 꽃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법가로 법을 청하자 무비 스님은 "부처님의 조사 스님들이 이 세상에 나투시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무풍기랑(無風起浪)'이라고 했다.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다"며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 같고 목을 메이며 이리 버티고 저리 버티며 숱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지만 한 생을 부딪히면 전부 무풍기랑이다. 바람이 없는데 물결이 이는 이 소식을 잘 참구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고 법문했다.



이날 건당식에서 무비 대종사는 금산사 주지 정행 스님, 현성정사 주지 마가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보일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해인사 교무국장 해가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대전 비구니 청림회 부회장 경조 스님, 전 금륜사 주지 도원 스님, 보광사 주지 송준 스님, 수하사 주지 수하 스님 등 9명의 스님에게 법호를 내리고, 전등법계보와 발우, <직지심체요절>을 강설하고 번역한 <직지강설>, '화엄(華嚴)'을 적은 휘호, 책 <왜 리더인가>를 전하며 정진하고 포교할 것을 당부했다.

건당 제자들은 고불문을 통해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칠 것을 다짐했다. 건당 제자들을 대표한 보일 스님은 고불문에서 "저희 제자들은 오늘의 인연을 자량삼아,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며 "바다 같이 한량없는 불법의 진실한 뜻 깊이 받아 지녀 광도중생(廣度衆生)을 대열반에 이르도록 정진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무비 대강백은 한국불교 사상 최초로 <화엄경> 80권 전체를 완역하고 강설해 세인들로부터 경이로움과 찬탄을 받고 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교학 연찬에 진력하시며, 위법망구(違法忘軀)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시어 후학들에게 경책이 되어 주셨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건당 제자들이 무비 대종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자 무비 스님은 바로 승가대학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다. 건당식은 '법의 기치(法幢)을 세운다'는 뜻으로, 스승이 불법을 제자에게 전해주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불법을 이어받아서 자신도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무비 대종사는 1958년에 출가해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그 해 여름 하안거부터 제방선원에서 20여 년 수행정진했으며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했다. 1976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 이후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부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에서 250여 명의 스님과 250여 명의 재가 신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하고 있다. 해인사=하성미 기자

해동용궁사 주제 사진공모전 시상식



대상-강동구 作 '자비의 빛'.

대한불교조계종 해동용궁사(주지 덕림)가 8월 23일 부산시 연제구 소재 국제문화센터 중강당에서 '제21회 국제신문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제신문이 공동주최한 이번 사진 공모전은 해동용궁사를 주제 및 소재로 한 작품과 자유창작작품을 공모했으며, 지난 3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140일간 접수를 받았다. 총 1728개의 작품이 접수됐고 32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강동구의 '자비의 빛', 금상에는 박창현의 '고요 속의 용궁사', 박호광 '꿈의 정원'이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해동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 안윤태 국제신문 사진동우회 회장을 비롯해 대중 4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붓다볼로 만나는 명상치유 프로그램

9월 20일 개강 12주, 40명 모집



홍법사 (사)싱잉볼치유의소리(이사장 심산)가 소리명상 프로그램 '붓다볼(Buddha Bowl)로 찾아가는 붓다의 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붓다볼은 소리명상 법구(法具)로 알려진 싱잉볼을 말하며, 프로그램은 고요한 마음으로 붓다볼의 소리를 비춰보는 관조와 효율적인 명상법을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9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주 동안 화요반, 수요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화요반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이며 수요반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각 20명으로, 총 40명이며 수업료는 10만 원이다. 장소는 홍법사 배움채 3층 명상실에서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깨달음의 열쇠! 선종 최고의 공안집

전등록 30권



전등록은 7불로부터 1조 가섭존자, 28조 달마대사, 33조 혜능대사 등 52세대 1,701인의 계보와 조사들의 깨달음의 골수를 말 밖의 말로 기록한 선종 최고의 공안집이다. 그러기에 지식이나 알음알이로는 선사들의 요지를 깨달아 들어갈 수 없으므로, 농선 대원선사가 선문염송30권, 화엄경81권을 완역한 혜안으로 각 조사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문을 열어 보였다.

역저 농선 대원선사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이 시대 유일한 선교 양종의 대종장으로

화엄경81권 완간

7불로부터 역대 조사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깨달음의 진수

이 시대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전등록 30권 완역본 / 500부 한정판매 / 도서출판 문젠 T: 010-8670-1445